

본 연구는 오늘날 대학의 무용교과과목이 실기위주로 편중되어 질적 성장의 담보상태로 올바른 예술론을 펼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술교육의 절실함과 함께 무용계의 시대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기존의 무용예술론 교과내용에 인간의 선한 가치추구를 위한 순수예술의 가치체계를 기독교적 예술론 강의를 통해 예술적 가치체계의 올바른 구성, 필요성과 역할을 절감하여며 논제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시대의 무용교육현장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 기능위주로 편향되어있고,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순수예술이 수반하여야 할 올바른 가치추구 보다는 대중예술과 혼재되어 순수무용이 가지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정체성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는 무용 교과과정 내에 무용이론, 특히 예술가들의 정신적 가치의 맥을 이어주는 예술론에 대한 이론적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교육현장의 현실이 지적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오늘날의 예술현장에서 자칫 인간성 상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예술행위에 대한 안타까움은 기존 예술론의 수업과정에서 예술의 진정한 가치추구에 대한 모호함과 현실과 이상의 한계성을 나타내며, 개인의 예술론 정립이 미흡함은 기능위주의 예술로 더 이상 무용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지 못하고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가 실기위주의 환경에서 예술론을 형성하기에 부족한 무용교육현장에서 기독교적 예술론을 기존 예술론 수업과정 내에 병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S대 석, 박사 몇몇의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강의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오늘날 더욱 모호해지는 예술행위가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진정한 정신적 가치를 기독교적 예술론을 통해 인간의 선함을 다시금 환원하는 의미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 분석결과, 종교적 접근보다는 가장 보편적인 학문에 입각하여 기독교적 예술론의 접근성에 대한 방법론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무용예술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선함의 가치를 통한 정신적 체계 구축으로 예술가의 예술관 정립에 있어 기독교적 예술론이 무용예술의 정신적 가치 정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학 무용과의 교과과정 내에 미학, 예술론, 예술철학에 대한 이론교육을 무용예술론으로 통칭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는 실제 대학의 이론교육에 있어서 예술론에 대한 교과목이 미약함으로 무용계는 무용기능이외에 철학적 사고부족, 고립, 생존위협에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체의 아름다운 움직임은 철학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을 때, 올바른 정신적 가치체계의 성립으로 곧, 움직임의 기초가 되어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예술가의 몫이라고 보는데, 현재의 무용교과과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 소홀했다고 보며, 아직까지의 학문적 체계가 잡히지 못한 상태가 무용교과의 현실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한국무용사 또한 음악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아직도 체육이나 음악분야에 종속되어

1) 숙명여대 무용학 박사, 수원민속예술단 예술감독

본연의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한국의 무용교과과정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세 분야로 나누어진 교육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근시대적인 무용교육방식으로 예술의 이론적 배경의 다양성에 가져올 수 없다고 보며, 이는 이론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로 무용계 발전의 저해요소였음을 절감하며, 앞으로 무용교과내용은 다양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기독교예술론이 예술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함은 오늘날 빠르게 변화해가는 현대사회에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무용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학의 실기위주의 교육현장이 주는 폐단은 이론적 연구에 대한 부재로 나타내며, 학문적인 연구의 미흡은 사적 고찰에 대한 연구자료 부족, 철학적 사고능력의 한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무용계는 현 시대에서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예술로 고립되어가고 있음을 개탄하며 기독교적 예술론을 통해 기존의 교과내용의 예술론에서 펼치지 못하는 선함의 가치를 기독교적 예술론을 통해 전파하고자 함으로 인식되었다.

예술론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학습은 반복되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 사유의 시간을 가질 때, 진정한 예술의 탄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무용계는 이런 사유의 교육과정이 부족하여 교육적 체계정립이 되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은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예술론이라는 교과과정 내에 기독교적 예술론이 예술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논고의 연구분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첫째, 서양예술사에 있어 역사학, 종교철학, 미학 등 시대사조와 예술가가 시대적으로 가지는 사적사유에 대한 시대적, 역사적 가치에 대해 알아 가는데 있어 예술사적 접근에서 기독교적 예술론은 서양 예술을 시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일반론이 이론적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는 기존의 예술사에 있어 기독교적 예술론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사고의 전환에 있어 서양예술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고의 중심은 기독교적 사고로 인간의 선함이 있는 정신적 가치추구 안에서의 기독교적 예술론은 종교철학적 관점으로 서양 예술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셋째, 기독교적 예술론 강의를 접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이나 인터뷰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예술론 접근과 종교적인 예술론 접근을 함에 있어, 강의참여자들 중 본 인터뷰에 응답자는 강의를 듣기 전의 거부감이나 우려를 강의를 들은 후에 사고의 전환과 거부감이 종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참여자의 숫자가 다소 부족하여 설득력 있는 일반적인 근거로 펼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오늘날 현대사회에 한국의 다양한 종교가 범람하는 시대에 기독교적 예술론이 가지는 선함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예술이 시대에 전하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적 예술론을 통해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함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며, 학문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현대시대에 선함의 가치를 전하는 학문으로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